

개념있는 중학 국어문법

정답과 해설



지학사



1

언어의 본질

개념 확인 문제

10~15쪽

1 ㉠ 2 ㉡ 3 ㉢ 4 ㉣

기본·문제

16~17쪽

01 ㉤ 2 ㉥ 3 ㉦ 4 ㉧ 5 ㉨ 6 ㉩ 7 ㉪
08 ㉫ 9 ㉬ 10 ㉭ 언어의 사회성, ㉮ 언어의 자의성

1. 이래서 정답 언어의 뜻과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어서 같은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언어의 사회성은 언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므로 바꾸어 쓸 수 없다는 특성이다. 언어가 당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은 사회성과 관련이 없다.
- ② 언어의 역사성은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생기거나, 소리나 뜻이 변하거나, 사라지기도 하는 특성이다.
- ③ 언어의 창조성은 인간은 습득한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다.
- ④ 언어의 규칙성은 언어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규칙이 있다는 특성이다.

2. 이래서 정답 제시된 단어들은 같은 뜻을 지닌 단어지만 언어마다 말소리가 다른 사례이므로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언어의 창조성에 관한 설명인 ㉡는 제시된 사례에 관한 언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래서 정답 <보기>의 ‘살우비’는 과거에는 사용하

였지만 지금은 사용하는 않는 단어이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나 뜻이 변하거나 사용하던 단어가 사라지기도 하는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 한다.

4. 이래서 정답 <보기>와 ㉡는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된 예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리가 변하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한 사례이다.
- ③ 하나의 대상을 어떤 말로 부르기로 약속한 것은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한 사례이다.
- ④ 대상을 표현하는 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한 사례이다.
- ⑤ 언어의 형식과 내용이 필연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한 사례이다.

5. 이래서 정답 언어의 사회성은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 쓸 수 없는 특성’이다. 따라서 언어의 사회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화가 통하지 않아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6. 이래서 정답 제시된 단어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어의 의미가 변화한 사례이다. ‘어옛븐’은 과거에는 ‘가없다’는 뜻이었지만, 현대에는 ‘예쁘다’는 뜻으로 의미가 변화한 단어이다.

오답 피하기

- ①, ④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어의 말소리가 변한 사례이다.
- ②, ③ 과거에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7. 이래서 정답 인간은 동물과 달리 습득한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창조성

이라고 한다.

8. 이래서 정답 ㄱ은 언어는 사회의 약속이라는 사회성, ㄴ은 언어의 뜻과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자의성, ㄷ은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는 역사성, ㄹ은 인간은 새로운 말을 무한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창조성과 관련한 사례이다.

9. 이래서 정답 ㉠은 말소리이고, ㉡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뜻)이다. 따라서 ㉤는 '㉡는 ㉠의 뜻이고, ㉠은 이에 해당하는 말소리'라고 표현해야 맞는 설명이 된다.

10. 이래서 정답 ㉠은 개를 개라고 한 이유가 사회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언어의 사회성이 드러나 있다. ㉡은 '개'를 나라마다 다르게 부른다는 설명으로 언어의 자의성이 나타나 있다.

심화·문제

18쪽

1 ① 2 ① 3 ③ 4 ②

1. 이래서 정답 학생들이 의미를 듣고 모두 '무지개'라는 소리를 외친 것은 사회에서 그런 의미를 '무지개'라고 부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② <보기>의 사례는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한 사례이다. 또한 언어의 내용(뜻)과 형식(말소리)은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이 임의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과학적인 근거와는 상관이 없다.

③ 어떤 대상의 이름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한 설명이다.

④ 시간이 흐르면서 말소리가 바뀌게 된 것은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무지개'가 과거와 말소리가 달라졌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배운 언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한 설명이다. <보기>는 언어가 사회적 약속이라는 사례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 이래서 정답 '뵈, 미르'는 예전에 사용하다가 사라진 말이고, '어엿브고', '어리다'는 의미가 변한 말이고, '인터넷, 컴퓨터, 휴대 전화'는 새로운 사물이나 문화가 나타나면서 생긴 말이다.

3. 이래서 정답 주어진 글 속의 남자는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자의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약속한 것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회성을 어기고 있다.

4. 이래서 정답 ㉡에서 제시된 단어들은 동음이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만약 말소리와 뜻의 관계가 필연적이었다면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단어는 각각 다른 소리로 표현하였을 것이다. ㉡은 언어의 뜻과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이 임의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예이다.



2

국어의 품사

개념 확인 문제

22~37쪽

1 (1) 품사 (2) 기능, 의미 2 명사, 대명사, 수사 3 (1) × (2) ○ 4 (1) 서술어 (2) 움직임, 형용사 5 (1) ○ (2) ×
 6 수식언 7 (1) × (2) × 8 체언 9 × 10 감탄사 11 ×

기본·문제

38~40쪽

1 ⑤ 2 ⑤ 3 ④ 4 ④ 5 ⑤ 6 ① 7 ②
 8 ② 9 ③ 10 ⑤ 11 ④ 12 ⑤ 13 ① 14 ①
 15 ④ 16 ③ 17 동사-㉠, ㉡, ㉢/형용사-㉣, ㉤, ㉥
 18 ㉠ 조사, ㉡ 체언(의존 명사), ㉢ 관형사, ㉤ 수사

1. 이래서 정답 수식언 중 부사는 ‘많이도 먹는다.’, ‘빨리도 간다.’처럼 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지만,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2. 이래서 정답 밑줄 친 단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불변어’이고, 다른 단어를 꾸미는 역할을 하므로 ‘수식언’이며, 체언을 수식하므로 ‘관형사’이다.

3. 이래서 정답 ‘아주’는 ‘잘 부른다’를 꾸며 주는 수식언(부사)이다. ④의 ‘살짝’은 ‘건네주었다’를 꾸며 주므로 같은 기능을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이’는 명사 뒤에 붙어 ‘무릎’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② ‘그’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이므로 체언의 기능을 한다.
 ③ ‘차다’는 문장의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용언(형용사)이다.
 ⑤ ‘어머나’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놀람 등을 나타내는 독립언(감탄사)이다.

4. 이래서 정답 가변어는 문장에서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보기>에서 ‘빛났다’는 ‘빛나다’의 가변어이다. ④의 ‘좋아한다’도 ‘좋아하다’의 가변어이다. <보기>와 ④는 가변어가 각각 한 개씩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시원한(시원하다)’, ‘마시니(마시다)’, ‘살(살다)’, ‘같다’ 등 4개의 가변어가 쓰였다.
 ② ‘뛰어난(뛰어나다)’, ‘많다’ 등 2개의 가변어가 쓰였다.
 ③ ‘고즈넉한(고즈넉하다)’, ‘걸어(걷다)’, ‘도착했다(도착하다)’ 등 3개의 가변어가 쓰였다.
 ⑤ ‘기뻐서(기쁘다)’, ‘부르며(부르다)’, ‘추었다(추다)’ 등 3개의 가변어가 쓰였다.

5. 이래서 정답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동사’에 대한 설명이다.

6. 이래서 정답 <보기>는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①에서 ‘그저’는 부사, ‘기쁘다’는 형용사, ‘따름’은 의존 명사이므로 대명사가 쓰이지 않은 문장이다.

오답 피하기

② ‘내’, ③ ‘우리’, ④ ‘당신’, ⑤ ‘그것’은 모두 대명사이다.

7. 이래서 정답 <보기>의 밑줄 친 단어는 ‘수사’이다.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데, (나)의 ‘첫째, 둘째, 셋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8. 이래서 정답 ① ‘세’는 관형사, ② ‘둘’은 수사, ③ ‘하루’는 명사, ④, ⑤ ‘다섯’과 ‘모든’은 관형사이다.

9. 이래서 정답 ㉠, ㉡, ㉢은 체언을 꾸미는 관형사로 각각 ‘가수’, ‘사람’, ‘추억’을 꾸미고 있다. ㉣, ㉤은 용언(좋아하니, 내렸다)을, ㉥은 문장(그날은 비가 아주 많이 내렸다.)을, ㉦은 부사(많이)를 꾸미는 부사이다.

10. 이래서 정답 체언을 꾸며 주는 품사는 관형사인 데, ㉠의 ‘이’, ㉡의 ‘오랜’이 이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의 ‘우리’는 대명사, ‘예쁜’은 형용사의 활용형이고, ㉡의 ‘이번에’는 명사 ‘이번’에 조사 ‘에’가 합쳐진 단어이고, ‘새로’는 부사, ‘산’은 동사의 활용형이다.

11. 이래서 정답 밑줄 친 단어는 부사로, 다른 말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 수식언이다. ①, ②는 용언, ③은 수식언 중 관형사, ⑤는 관계언에 대한 설명이다.

12. 이래서 정답 ㉠~㉣은 모두 부사이다. ㉤ ‘소중하게’는 형용사인 ‘소중하다’가 형태를 바꾼 것이다.

13. 이래서 정답 <보기>의 ‘맑다’는 형용사로, 어미 ‘-는다’, ‘-자’ 등은 붙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② ‘빠르다’, ⑤ ‘바쁘다’의 품사는 형용사이고, ③ ‘던지다’, ④ ‘돕다’의 품사는 동사이다.

14. 이래서 정답 ㉠은 동사이고, ㉡은 관형사, ㉢은 대명사, ㉣은 부사, ㉤은 관형사이다. 따라서 용언은 ㉠이 해당한다.

15. 이래서 정답 <보기>의 밑줄 친 단어는 조사인데, ④는 수식언에 대한 설명이다.

16. 이래서 정답 <보기>의 밑줄 친 단어들은 감탄사이므로,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인다.

오답 피하기

①은 용언, ②는 체언, ④는 관계언, ⑤는 수식언 중 부사에 대한 설명이다.

17. 이래서 정답 동사와 형용사는 동사만이 현재형 어미 ‘-는다, -니다’나 명령형,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18. 이래서 정답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며 조사가

붙을 수 없지만, 수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심화·문제

41쪽

1 ① 2 예시 답 참조 3 ③ 4 예시 답 참조

1. 이래서 정답 <보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체언이다. ‘하늘’, ‘모성애’, ‘도전’은 모두 체언인 명사이다.

오답 피하기

- ② ‘온갖’은 수식언, ‘아름답다’는 용언
- ③ ‘흐르다’는 용언, ‘갑자기’는 수식언
- ④ ‘밖에’는 체언+관계언, ‘매우’는 수식언, ‘어리석다’는 용언
- ⑤ ‘방긋방긋’은 수식언, ‘춥불’, ‘우리’는 체언

예시 답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 청유형(청유형 어미), 명령형(명령형 어미), ‘-는다/-니다’

2. 이래서 정답 ③의 문장에서 감탄사는 ‘휴우’, 가변어는 ‘먹어서’, ‘고파’가 쓰였다.

오답 피하기

- ① 감탄사는 ‘여보게’, 가변어는 ‘먹게’가 쓰였다.
- ② 감탄사는 없고, 가변어는 ‘와서’, ‘놀자’가 쓰였다.
- ④ 감탄사는 ‘하하’, 가변어는 ‘지나면’, ‘신나게’, ‘놀’, ‘있어’가 쓰였다.
- ⑤ 감탄사는 ‘어머’, 가변어는 ‘잇고’, ‘가지고’, ‘왔네’가 쓰였다.

3. 예시 답 <보기>의 ‘같이’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하므로, ㉠이 알맞은 띄어쓰기이다.



3

어휘 체계와 양상

개념 확인 문제

46~52쪽

- 1 어중 2 별, 가람 3 (1) 방언 (2) 뜨겁다, 상의어 (3) 은어

기본·문제

53~54쪽

- 1 ② 2 ⑤ 3 ⑤ 4 ④ 5 ③ 6 ④ 7 ⑤
8 ⑤ 9 (1) ㉠ 가는, ㉡ 빠르게 (2) 상의어: 신발, 하의어: 운동화, 구두 등 (3) 신고(신다)

1. 이래서 정답 <보기>는 고유어에 대한 설명이다.

② ‘눈썹’은 고유어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③ 독서(讀書)는 ‘읽을 독(讀)’, ‘책 서(書)’로, 청춘(青春)은 ‘푸를 청(靑)’, ‘봄 춘(春)’으로 이루어진 한자어이다.

④, ⑤ 바나나(banana), 인터넷(Internet)은 본디 우리에게 없던 과일과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 우리말로 굳어진 외래어이다.

2. 이래서 정답 <보기>의 단어들은 외래어로,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며 함께 들어온 말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② 고유어에 대한 설명이다.

③ 은어에 대한 설명이다.

④ 한자어에 대한 설명이다.

3. 이래서 정답 (가)의 단어들은 외래어이지만, (나)는 외국어이므로 ⑤는 알맞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가)의 ‘뽕’과 ‘버스’는 우리말에 없던 음식과 기계로 ②), 우리말로 바꾸어 쓸 적절한 단어가 없어 우리 말처럼 굳어진 외래어이다(①). (나)의 ‘하우스’와

‘플라워’는 외국어로 각각 ‘집’, ‘꽃’과 같은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③). 또한 우리말로 굳어진 표현이 아니기에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④).

4. 이래서 정답 ‘마음’은 고유어이므로 예로부터 우리가 사용해 온 말이다. ④는 한자어에 대한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은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마음이 향하는 바, 또는 무엇을 하려는 생각’을 의미하는 한자어 ‘의향’과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은 ‘이성이나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호의(好意)의 감정’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좋게 여기는 감정’을 의미하는 한자어 ‘호감’과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마음’은 순우리말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지 않고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말이다.

⑤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5. 이래서 정답 공적이고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해당 방언을 사용하는 집단에 속하면서 상대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때에는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06. 이래서 정답 <보기>의 대화는 ‘은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은어는 집단 내의 비밀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므로 집단 밖의 사람들과는 의사소통하기 어렵고, 외부로 알려질 경우에는 그 성격을 잃는다. 또한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끼리 사용하므로 소속감과 친밀감을 줄 수 있다. ④는 유행어에 대한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이래서 정답 ⑤의 ‘열다’는 ‘관계를 맺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개시하다’는 ‘행동이나 일 따위를 시작하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열다’가 ‘닫히거나 잠긴 것을 트거나 벗기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한자어 ‘개봉하다’와 대응된다.
- ② ‘열다’가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시작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한자어 ‘개최하다’와 대응된다.
- ③ ‘열다’가 ‘문이나 공간 등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한자어 ‘개방하다’와 대응된다.
- ④ ‘열다’가 ‘사업이나 경영 따위를 시작하다.’는 의미이므로 한자어 ‘개업하다’와 대응된다.

8. 이래서 정답 밑줄 친 단어들은 영화와 관련된 전문어의 예이다. 전문어는 특정 분야의 대상이나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그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준다.

오답 피하기

①은 지역 방언, ②, ③은 사회 방언, ④는 은어에 대한 설명이다.

- 9. 이래서 정답** (1) ㉠은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고 짧다.’는 의미의 ‘가늘다’가 적절하다. ㉡은 ‘어떤 동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라는 뜻의 ‘빠르다’가 적절하다.
- (2) ‘신발’은 장화, 운동화, 구두 등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이므로 상의어가 되고, 나머지는 그 하의어가 된다.
- (3) ‘벗고’의 대상이 ‘장화’이므로 이에 대한 반의어는 ‘신, 버선, 양말 따위를 발에 꿰다.’의 의미인 ‘신다’가 적절하다.

하고 있다. 은어는 집단 내부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지만,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는 어휘이다. ④는 비속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2. 예시 답 고유어는 대응하는 한자어들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고유어는 한자어에 비해 의미의 폭이 넓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좀 더 전문화되고 분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등)

3. 이래서 정답 진수 삼촌은 전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수와 강민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②, ④ 진수와 강민은 ‘레알’, ‘뽕미’, ‘솔까말’, ‘공신’ 등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또래 학생들이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 ③ 진수는 삼촌의 대화에서 ‘디스트리뷰터’, ‘마운트’, ‘클리치’ 등 자동차 정비에 관한 전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⑤ 삼촌은 청소년 또래에서 주로 사용하는 진수와 강민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1. 이래서 정답 <보기>에서 형과 동생은 엄마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 쌤, 아템, 현질’과 같은 은어를 사용



4

올바른 발음과 표기

개념 확인 문제

60~72쪽

- 1 (1) 표준어 (2) 한글 맞춤법 2 (1) ① (2) ② 3 (1) ⑤
(2) ② (3) ④ 4 (1) ① (2) ②

기본 문제

73~74쪽

- 1 ① 2 ③ 3 ① 4 ② 5 ④ 6 ③ 7 ④
8 ⑤ 9 ② 10 ② 11 ㉠ 가버치 ㉡ 너겟따 ㉢ 부
어갑

1. 이래서 정답 <표준 발음법> 제5항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애’는 [애]라고 발음해야 한다.

2. 이래서 정답 겹받침 ‘ㄹ’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지만, ‘ㄱ’ 앞에서는 겹받침의 ‘ㄱ’을 탈락시키고 [ㄹ]로 발음한다. ③은 [막찌만]으로 발음한다.

오답 피하기

① [말꼬], ② [말께], ④ [말꺼나], ⑤ [말꾼]으로 발음한다.

3. 이래서 정답 음절의 끝소리에서는 7개의 자음만 발음되며,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 이에 해당한다.

4. 이래서 정답 ②는 ‘뵤다[뵤:따]’로, ‘뵤-’은 자음 앞에서 항상 [뵤]으로 발음된다.

오답 피하기

① 읽고[일꼬], ③ 외곶[외골], ④ 할다[할따], ⑤ 넓다[넙따]

5. 이래서 정답 ‘ㅎ(ㅈ, ㅊ)’ 뒤에 ‘ㄱ, ㄷ, ㅌ’이 결합

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하므로 [달치]로 발음해야 한다.

6. 이래서 정답 <보기>는 겹받침의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암탉이’는 ‘-ㅌㅍ-’의 받침 ‘ㄹ’이 모두 발음되어 [암탈기]로 발음한다.

오답 피하기

① 여덟이[여덜비], ② 흙을[흙글], ④ 값이[갑씨], ⑤ 삶이[살미]

7. 이래서 정답 ‘닭은’, ‘삶아라’는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따라 [달근], [살마라]로 발음해야 하고, ‘부엌에’, ‘있으니’, ‘술에’는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따라 [부어케], [이쓰니], [소테]로 발음해야 한다.

8. 이래서 정답 ‘ㄴ’은 자음 없이 첫머리에 쓰이는 경우 ‘ㄴ’로만 발음된다.

오답 피하기

① [가저], ② [나지], ③ [다가페], ④ [바틀]

9. 이래서 정답 ② ‘ㅎ’의 발음은 받침 ‘ㄱ(ㄹ), ㄷ, ㅂ(ㅍ), ㅌ(ㅊ)’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덥히면’은 받침 ‘ㅂ’과 ‘ㅎ’이 결합하여 [더피면]으로 발음한다.

오답 피하기

① ‘ㅎ’은 뒤에 ‘ㄱ’이 오면 그것과 합하여 [ㅋ]으로 발음한다.

③ ‘ㅎ’은 뒤에 ‘ㄷ’이 오면 그것과 합하여 [ㅌ]으로 발음한다.

④ ‘ㄱ’은 뒤에 ‘ㅎ’이 오면 그것과 합하여 [ㅋ]으로 발음한다.

⑤ ‘ㅌ’은 뒤에 ‘ㅎ’이 오면 그것과 합하여 [ㅊ]으로 발음한다.

10. 이래서 정답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2]의 규정에 의하면, ‘계시다’는 [계:시다]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게:시다]로도 발음할 수 있다.

11. 이래서 정답 〈표준 발음법〉 제15항에는 만약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경우에는 받침이 대표음으로 먼저 바뀌고, 뒷말에 이어져서 발음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갑어치 → 가버치]로, ㉡은 [넉업따 → 너겍따], ㉢은 [부억압 → 부어갇]으로 발음해야 한다.

심화·문제

75쪽

1 ④ 2 예시 답 참조 3 ④ 4 ⑤

1. 이래서 정답 ㉠은 ‘의의’라는 단어의 첫 글자이다. 단어의 첫음절의 ‘의’는 [의]로 발음해야 한다.

2. 예시 답 받침의 발음은 원래의 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음절 끝에서 ‘ㄱ, ㄴ, ㄷ’은 [ㄱ]으로 발음되고, ‘ㄷ, ㅌ’은 [ㄷ], ‘ㅅ, ㅆ, ㅈ, ㅊ’도 [ㄷ], ‘ㅂ, ㅍ’은 [ㅂ]으로 발음된다.

3. 이래서 정답 ‘넉은’은 [넉븐]으로 발음하고, ‘뺨으세요’는 [뺨브세요]로 발음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뺨지[뺨:찌]’의 예를 통해 겹받침 ‘ㅃ’은 [ㅂ]으로 발음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② ‘여뺨’은 [여뺨]로 발음되지만, ‘뺨다’는 [뺨:따]로 발음되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 ③ ‘넉다’는 [넉따]로 발음되지만, ‘뺨다’는 [뺨:따]로 발음되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 ⑤ ‘뺨다’는 [뺨:따]로 발음되고, ‘넉다’는 [넉따]로 발음되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4. 이래서 정답 단모음 ‘니’는 이중 모음 [네]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하지만 ‘돼’의 경우는 ‘되어’의 줄임말로, 이중 모음 [돼]로 발음하여야 한다.



5

담화와 맥락

개념 확인 문제

80~85쪽

1 청자 2 (1) 맥락 (2) 공간적 (3) 사회·문화적 맥락

기본·문제

86~87쪽

1 ③ 2 ④ 3 ⑤ 4 ③ 5 ⑤ 6 ④ 7 ⑤
8 ①

1. 이래서 정답 담화는 청자의 배경이나 처지에 따라 뜻이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화자의 의도는 발화뿐만 아니라 발화가 이루어지는 맥락까지 살펴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② 말이나 글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 ④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의 추상적인 말은 ‘생각’이다.
- ⑤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담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2. 이래서 정답 ㉠에서 화자가 있는 곳은 ‘집’이고, ‘영화관’이라는 장소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적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오후 2시부터’에서 시간적 상황을 알 수 있다.
- ②, ⑤ ㉠은 화자가 대한, 청자가 민국이고, ㉡은 화자가 민국, 청자가 대한이다.
- ③ ㉠에서 대한이 민국에게 영화를 같이 보러 가고 제안하고 있다.

3. 이래서 정답 상황 맥락에는 시간과 장소, 발화 목

적과 의도, 화자와 청자 등이 포함된다. ⑤ 사회·문화적 상황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포함된다.

4. 이래서 정답 ㉠은 준영에게 빵을 좀 나눠 달라는 현준이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이다.

5. 이래서 정답 (가)는 문화의 차이에 의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나)는 지역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6. 이래서 정답 편의점 문 앞에 붙어 있는 메모이므로 글쓴이와 독자는 ‘편의점’이라는 공간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글쓴이는 편의점 주인이다.
- ② 예상 독자는 편의점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다.
- ③, ⑤ 글쓴이와 독자는 시간적 맥락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주인이 돌아온다는 ‘한 시간 후’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다.

7. 이래서 정답 아빠는 딸의 성적을 질책하는 의도에서 한 말이고, 딸이 이에 맞게 반성하는 태도로 대답하고 있으므로 의도가 잘 전달된 담화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치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 병원에서 진료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식사할 때 치아가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 ② 도서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 달라는 의도이므로, 위치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한다.
- ③ 지혜는 짐이 많아 걷기가 힘들니 짐을 나눠 들어 달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짐을 나눠 들자고 했어야 한다.
- ④ 엄마는 게임을 그만하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므로, 아들은 양해를 구하거나, 그만하겠다고 대답했어야 한다.

8. 이래서 정답 <보기>는 세대에 따른 언어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다. ‘자리끼’는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로 주로 어른 세대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손자는 ‘자리끼’의 뜻을 몰라서 할머니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화·문제

88쪽

1 ㉠ 2 예시 답 참조 3 ㉠ 4 예시 답 참조

1. 이래서 정답 <보기>는 세대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상황의 예이다. ‘잘 나가다’는 표준어이므로 지역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피하기

- ② ‘어디를’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할머니는 ㉠을 ‘사회적으로 성공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밖으로 이동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④ 경선은 ‘비어 있는 콤팩트디스크에 음악이나 영상 따위의 정보를 기록하다.’는 의미로 ‘굽다’라고 표현하였지만, 할머니는 ‘불에 익히다.’의 의미로 이해하였다.
- ⑤ ‘그런 게 있어요.’라는 표현은 상대를 무시하는 표현이다. 청자가 할머니라는 점에서 더욱 이런 표현은 자제하고 예의 바른 표현으로 사용해야 한다.

2. 예시 답 ㉡는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는 동생에게 텔레비전 내용이 재미있는지를 물어보고 있고, ㉢는 누나가 넘어진 자신의 상황을 걱정하거나 도와주지 않고 웃는 동생에게 야속함을 드러내고 있다.

3. 이래서 정답 ㉠은 앞의 질문과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화자와 청자가 맥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예시 답 ㉠은 얼굴이 잘생겼다는 것에 대한 감탄의 의도가 담겨 있고, ㉡은 변변치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는데 자랑을 한다는 비난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6

우리의 문자, 한글

개념 확인 문제

92~105쪽

- 1 (1) 표음 문자 (2) 향찰 2 (1) ㉠ (2) ㉡ (3) ㉢ 3 (1) 상형 (2) 가획 (3) 합성 4 ㉠

기본 문제

106~108쪽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 이래서 정답 언문일치가 가능한 문자는 한글이고, 한자는 언문일치가 가능하지 않아 한자로 소통하는 것이 어려웠다.

2. 이래서 정답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표기하거나 읽는 것이 어려웠다.

오답 피하기

- ① 「서동요」는 향찰로 표기된 향가이다.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다.
③ ㉠ ‘公主’는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한 것으로 ‘왕의 딸’이라는 뜻이다.
④ ㉡ ‘主’는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하여 읽을 때도 ‘주’로 읽지 않고 ‘님’이라고 읽었다.
⑤ ㉢ ‘隱’은 우리말의 조사 ‘은’을 적기 위하여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3. 이래서 정답 자음은 입 모양의 크기에 따라 획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소리가 발음될 때 이에 관여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를 만들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 기본자에 획을 추가하여 만들었다.

4. 이래서 정답 ㉠은 정인지 서문의 내용으로, 슬기

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고도 전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한글이 배우기 쉬운 글자임을 나타낸 것이다.

5. 이래서 정답 한글은 자음과 모음 모두 상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만들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다.

6. 이래서 정답 ㄷ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라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ㄹ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글자를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ㅁ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라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오답 피하기

- ㄱ. ‘사대주의’는 주체성이 없이 세력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태도이다.
ㄴ. ‘우월주의’는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태도나 그런 사고방식을 말한다.

7. 이래서 정답 ‘ㄱ’은 발음할 때 혀가 구부러져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②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③ ‘ㅁ’은 입(입술)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④ ‘ㅅ’은 이(앞니)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⑤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8. 이래서 정답 가획의 원리는 기본자에 획을 더해 소리의 세기가 센 글자를 만드는 원리이다.

9. 이래서 정답 모음의 기본자 ‘·, ㅡ, ㅣ’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다.

오답 피하기

- ① 모음의 초출자는 ‘ㄱ, ㄷ, ㅌ, ㄴ’이다.
- ② 모음의 재출자는 ‘ㅇ, ㅈ, ㅊ, ㅋ’이다.
- ③ 재출자는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 ④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은 자음이다.

10. 이래서 정답 병서는 자음을 나란히 붙여서 쓴 것을 말한다.

오답 피하기

②는 연서, ③은 합성, ④와 ⑤는 모아쓰기에 대한 설명이다.

11. 이래서 정답 기본자 ‘ㄹ’을 바탕으로 획을 더한 글자로는 ‘ㄴ, ㄹ’이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ㅇ’은 모음의 재출자이다.
- ② ‘ㄷ’과 ‘ㅌ’은 가획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 ④ ‘ㄱ, ㄷ, ㅌ, ㄴ’은 모음의 기본자 ‘ㅏ, ㅑ, ㅓ, ㅕ’으로 만든 초출자이다.
- ⑤ ‘ㄹ’은 이체자로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12. 이래서 정답 자음자를 나란히 붙여 글자를 만드는 것을 병서라 한다. ‘ㄹ’은 자음의 기본자가 아니고(ㄱ), 모음의 기본자는 ‘ㅏ, ㅑ, ㅓ’이다(ㅕ). ‘획 추가’라는 기능의 자판은 가획과 합성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ㄷ).

13. 이래서 정답 영어는 하나의 글자에 여러 가지 소리가 대응되지만, 한글은 하나의 글자에 하나의 소리가 대응하여 다른 글자들에 비해 배우기가 쉽다.

14. 이래서 정답 입 모양을 본떠 만든 초성자는 ‘ㄱ’이고, 평평한 땅의 모습을 본떠 만든 중성자는 ‘ㅡ’이다. 따라서 ‘ㄱ’과 ‘ㅡ’가 포함된 단어는 ‘그물’이다.

15. 이래서 정답 한글은 자모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글자를 조합할 수 있어, 어떤 글자든 만들 수 있다.

16. 이래서 정답 한글은 조선 시대부터 쓰이기는 했으나 일부 사대부들이 ‘언문’이라 부르며 낮잡아 보았고, 고종 31년에 이르러서야 국문으로 인정받았다.

심화·문제

109쪽

1 ⑤ 2 예시 답 참조 3 ②

1. 이래서 정답 (라)는 모음의 ‘합성의 원리’에 대한 사례이다. 모음은 ‘ㅏ, ㅑ, ㅓ’의 기본자를 합성의 원리에 따라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다. 병서의 원리는 자음의 제자 원리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자음의 기본자는 ‘ㄱ, ㄷ, ㅌ, ㄴ, ㅇ’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만들었다.
- ② 모음의 기본자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인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다.
- ③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를 가획자라고 하는데, 가획자는 획을 더하면서 소리가 거세진다.
- ④ 기본자에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거세지는 가획의 원리는 그만큼 소리와 글자 표기가 밀접하게 연결됨을 보여 준다.

2. 예시 답 ㅈ, ㅊ / ‘ㅈ, ㅊ’은 ‘ㄱ’의 가획자이다. 가획의 원리에서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거세진다고 하였으므로, ‘ㄱ → ㅈ → ㅊ’으로 가획이 되면서 점점 소리가 거세지고, 의미에도 강한 뜻을 주게 된 것이다.

3. 이래서 정답 ‘기범’은 상형의 원리를 통해 자음의 기본자를 만든 한글의 독창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라’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자음의 기본자에서 한 획이 더해질 때마다 발음이 강해진다는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다래’는 한글의 자모들을 결합하여 음절 단위로 표기하는 한글의 실용성을 말하고 있다. ‘리안’은 모음의 기본자를 바탕으로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든 한글의 경제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7 음운 체계

개념 확인 문제

114~124쪽

1 ㉠ 2 ㉡ 3 ㉢ 4 ㉣ 5 ㉤ 6 ㉥ 7 (1)
7음절 (2) 7음절 (3) 3음절

기본 문제

125~126쪽

1 ㉠ 2 ㉡ 3 ㉢ 4 ㉣ 5 ㉤ 6 ㉥ 7 ㉦
8 ㉧

1. **이래서 정답** ㉤은 올림소리 중 콧소리(비음)로, 공기가 코안을 지나면서 나는 소리이다.

2. **이래서 정답** 말의 뜻을 구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 소리의 길이가 있다.
- ② 소리의 길이도 뜻을 구별해 주므로 음운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음절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를 말한다.
- ⑤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는 자음이다.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다.

3. **이래서 정답** ‘ㄱ, ㄷ, ㅂ’은 파열음이다. 파열음은 발음 기관을 막았다가 갑자기 열어 공기를 터뜨리며 내는 소리이다.

오답 피하기

- ① ‘ㅂ’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②는 흐름소리, ③은 콧소리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는 ‘ㄱ’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4. **이래서 정답** 밑줄 친 시구는 흐름소리인 ‘ㄹ’이 반

복적으로 사용되어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오답 피하기

②는 저모음, ③은 이중 모음, ④는 콧소리, ⑤는 평순 모음을 가리키지만 부드러운 느낌과는 관계가 없다.

5. **이래서 정답** 제시된 조건은 평순 모음, 전설 모음, 고모음에 대한 설명이다. ㉠의 모음인 ‘ㅣ’는 평순 모음, 전설 모음, 고모음에 모두 해당하는 모음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의 ‘ㄱ’은 원순 모음, 전설 모음, 고모음이다.
- ② ㉡의 ‘ㄷ’은 평순 모음, 전설 모음, 중모음이다.
- ③ ㉢의 ‘ㅏ’는 평순 모음, 후설 모음, 저모음이다.
- ④ ㉣의 ‘ㅓ’는 평순 모음, 전설 모음, 저모음이다.

6. **이래서 정답** <보기>는 이중 모음의 특징에 대한 대화이다. 따라서 이중 모음이 아닌 것을 찾으려면 된다. ‘ㅝ’는 단모음이다.

7. **이래서 정답** ‘ㅑ’는 이중 모음인데, 발음할 때 혀가 ‘ㅣ’ 정도 위치에 있다가 아주 빠르게 ‘ㅏ’의 위치로 이동하며 입이 벌어진다. <보기 2>의 ㄷ과 ㄹ은 단모음에 대한 설명이다.

8. **이래서 정답** ㉠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므로 [눈:], ㉡은 인체의 감각 기관이므로 [눈], ㉢은 해가 저문 후 날이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므로 [밤], ㉣은 먹는 밤이므로 [밤:]이 알맞은 발음이다.

심화 문제

127쪽

1 소나무 2 ㉢ 3 ㉠ 4 ㉡

1. **이래서 정답** 혀끝이 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는 ‘잇몸소리’이고,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나는 소리는 ‘마찰음’이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자음은 ‘ㅅ, ㅆ’이다. 이 중 목에 힘이 덜 들어가고, 공기를 덜 내뿜는 소리인 예사소리의 조건에

맞는 것은 ‘ㅅ’이다.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나는 소리는 ‘콧소리’로, ‘잇몸소리’이면서 ‘콧소리’인 자음은 ‘ㄴ’이다. 두 입술이 맞닿으며 나는 소리는 ‘입술소리’이며, ‘입술소리’이면서 ‘콧소리’인 자음은 ‘ㅁ’이다. 따라서 단어가 되는 조합은 ‘소나무’이다.

2. 이래서 정답 ‘ㅁ, ㅍ, ㅂ’은 입술소리, ‘ㄴ’은 잇몸소리, ‘ㅅ, ㅊ’은 센입천장소리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3. 이래서 정답 선택지에서 유음은 ‘ㄹ’이고, 거센소리는 ‘ㄷ, ㅌ’이다. 선택지의 이름 중 이중 모음은 ‘ㅕ, ㅖ’이므로 ‘유리’가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이름이다.

오답 피하기

- ② ‘희주’는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흐름소리(유음)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③ ‘민지’는 흐름소리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중 모음도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채은’은 흐름소리가 사용되지 않았고, 거센소리(‘ㄷ’)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모음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⑤ ‘푸른’은 거센소리(‘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모음을 사용하지 않았다.

4. 이래서 정답 두 번째 암호는 ㅏ(8), 세 번째 암호는 ㅓ(4), 네 번째 암호는 ㅣ(0)로, 비밀번호는 2840이다.



8

문장의 짜임과 표현

개념 확인 문제

132~145쪽

- 1 부속 성분 2 ○ 3 (1) ○ (2) × 4 ④ 5 ①
6 ○ 7 ⑤ 8 (1) 서술절 (2) 관형절 9 ⑤

기본 문제

146~148쪽

- 1 ④ 2 ④ 3 ③ 4 ④ 5 ② 6 ⑤ 7 ②
8 ⑤ 9 예시 답 참조 10 ② 11 ④ 12 ④
13 ④ 14 ② 15 예시 답 참조 16 (1) 청유문
(2) 평서문 (3) 감탄문 (4) 의문문 (5) 명령문 17 예시 답 참조

1. 이래서 정답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이다. ④는 ‘강아지가(주어) 주인을(목적어) 기다린다(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저(관형어) 꽃은(주어) 아름답다(서술어).
- ② 지수야(독립어), 너(주어) 숙제했니(서술어)?
- ③ 영웅이는(주어) 나의(관형어) 친구이다(서술어).
- ⑤ 살금살금(부사어) 고양이가(주어) 집안을(목적어) 돌아다닌다(서술어).

2. 이래서 정답 ‘구’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단위이다. ④ ‘그가 떠난’은 ‘그가(주어) 떠나다(서술어)’라는 문장이 관형사형 어미 ‘-ㄴ’에 의해 안은문장 안에서 관형절로 기능하고 있다. 즉,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가 아닌 ‘절’이다.

3. 이래서 정답 ㉠은 ‘대한이는 지금 집에서 책 봐.’에서 주어(대한이는), 부사어(지금, 집에서)가 생략되어 있으며, 목적어 ‘책’은 생략되지 않았다. ㉡은 ‘어제 나는 한국이랑 같이 영화관에 갔어.’에서 부사어(어제, 같이, 영화관에), 주어(나는)가 생략되어 있다.

4. 이래서 정답 이어진문장은 두 개 이상의 홑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 결합된 문장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겹문장은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 ② 홑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다.
- ③ 겹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며 절의 형태가 아닌 관형어나 부사어는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 이어진문장에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

5. 이래서 정답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②는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다.’처럼 앞 절과 뒤 절의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은 ‘발표를 해야 사탕을 주지’로, ③은 ‘버스를 놓쳐서 늦잠을 잤다’로, ④는 ‘배가 나오니까 운동을 안 한다.’로, ⑤는 ‘하루 종일 기다리려고 너를 만났다.’로 각각 원래의 문장과 의미 차이가 생긴다.

6. 이래서 정답 ① 부사절(‘말도 없이’), ② 인용절(‘우리도 오겠다고’), ③ 명사절(‘방학이 오기’), ④ 관형절(‘수진이가 아끼는’)을 안은 문장이다. ⑤는 어미 ‘-지만’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7. 이래서 정답 ②는 ‘나는 아이들을 좋아한다.’와 ‘(나는) 선생님이 되었다.’가 ‘-(아)서’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다. 앞 문장은 뒤 문장의 이유가 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의 앞 문장은 뒤 문장의 ‘의도’가 된다.
- ③의 앞 문장은 뒤 문장의 ‘배경’이 된다.
- ④의 앞 문장과 뒤 문장은 ‘대조’된다.

⑤의 앞 문장과 뒤 문장은 ‘나열’된다.

8. 이래서 정답 <보기>는 ‘내가 (그림을) 그리다’라는 문장이 관형사형 어미 ‘-는’에 의해 관형절로 안겨 있다. ⑤ 역시 ‘내가 어제 책을 (서점에서) 샀다.’가 관형사형 어미 ‘-ㄴ’에 의해 관형절로 안겨 있다.

오답 피하기

- ①은 서술절, ②는 명사절, ③은 부사절, ④는 명사절이 안겨 있다.

9. 예시 답 ㉠은 ‘우리는 복숭아를 닐다.’, ‘복숭아가 잘 익었다.’로 나눌 수 있고, 생략된 말은 ‘복숭아(가)’이다. ㉡는 ‘내가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이 대상 작품으로 선정되었다.’로 나눌 수 있고, 생략된 말은 ‘사진(을)’이다.

10. 이래서 정답 ②는 조건의 의미를 가진 어미 ‘-면’으로 이어진 문장이므로 오류가 없는 겹문장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③ 이 제품은 디자인이 멋지고 가격이 싸다.
- ④ 인류는 자연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연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 ⑤ 나는 주말에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1. 이래서 정답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다. 이는 문장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인 관형어처럼 쓰인다.

오답 피하기

- ① 안긴문장이다.
- ② ‘절’이라고 부른다.
- ③ 인용절이 아니라 관용절이다.
- ⑤ 관형어처럼 기능하고 있다.

12. 이래서 정답 ㉠은 ‘얼굴이 예쁘다.’가 서술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다. ㉡는 ‘가방이 가격이 비싸다.’

가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하여 전체 문장 안에서 관형절로써 기능하고 있다.

13. 이래서 정답 ㉔는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홑문장, ㉕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㉖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으로, ㉗와 ㉘는 겹문장이다. ㉗에는 ‘나열’의 의미를 가진 연결 어미 ‘-고’가, ㉘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쓰였다.

14. 이래서 정답 ㉔와 ㉕는 모두 겹문장이며, ㉔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㉕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15. 예시 답 날씨가 추워져서 강물이 얼었다. / 홑문장으로 있을 때보다 겹문장이 되었을 때 두 문장의 관계가 더 긴밀하다. 다양한 생각이나 복잡한 상황을 홑문장보다 잘 표현할 수 있다.

16. 이래서 정답 (1)은 청유형 어미 ‘-ㅂ시다’를 사용한 청유문, (2)는 평서형 어미 ‘-다’를 사용한 평서문, (3)은 감탄형 어미 ‘-구나’를 사용한 감탄문, (4)는 의문형 어미 ‘-ㅂ니까’를 사용한 의문문, (5)는 명령형 어미 ‘-ㅂ시오’를 사용한 명령문이다.

17. 예시 답

• 남학생이 말한 의미: 희재랑 같이 민규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 여학생이 이해한 의미: 희재와 민규 두 명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오답 피하기

㉑을 중의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게 고치려면 ‘희재랑 같이 민규 병문안 가기로 했거든.’이라고 쓰면 된다.

1 ㉔ 2 ㉔ 3 ㉕ 4 ㉔

1. 이래서 정답 ‘학생들은 기다린다.’는 문장 안에 ‘방학이 시작된다.’는 문장이 안겨 있다. 두 문장의 주어는 각각 ‘학생들’과 ‘방학이’로 다르므로 생략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㉑은 ‘안경을 낀’의 주어인 ‘여자’가, ㉒는 ‘내가 읽던’의 목적어인 ‘책’이, ㉓은 ‘학교에 갔다’의 주어인 ‘다영이’가, ㉔는 ‘시험에서 합격할 것이다’의 주어인 ‘소연이’가 각각 생략되어 있다.

2. 이래서 정답 ‘죽음’은 관형어 ‘의로운’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다.

오답 피하기

㉑은 ‘네가 내 옆에 있음’, ㉒는 ‘성준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 ㉔는 ‘성재를 만날 수 있기’, ㉕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하기’의 명사절이 안겨 있다.

3. 이래서 정답 ㉔은 ‘말도 없이’라는 부사절이 안겨 있는 겹문장이다.

4. 이래서 정답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된 명사절 ‘방학이 되기’가 안긴문장이다.

오답 피하기

㉑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㉓ 관형절을 안은 문장

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㉕ 부사절을 안은 문장

9 통일 시대의 국어

개념 확인 문제

154~159쪽

1 ① 2 ④ 3 ④

기본·문제

160쪽

1 ④ 2 ① 3 ③ 4 ⑤ 5 ③

1. 이래서 정답 북한의 사전에서 모음 순서는 10개의 기본 모음이 먼저 나온다.

오답 피하기

- ①, ⑤ 남한은 ‘ㄱ’ 다음에 ‘ㅍ’이 나오고, 북한은 겹 자음이 기본 자음이 나온 뒤에 나온다.
- ② 남한은 ‘ㅅ’ 뒤에 ‘ㅇ’이 나오지만 북한은 자음이 모두 끝난 뒤에 ‘ㅇ’이 나온다.
- ③ 남한은 ‘ㅈ’ 뒤에 ‘ㄱ’이 나오고, 북한은 ‘ㅈ’ 뒤에 ‘ㅈ’이 나온다.

2. 이래서 정답 ‘손기척’은 ‘노크’, ‘창가림’은 ‘커튼’, ‘향참외’는 ‘멜론’의 북한말로, 북한의 외래어 말다듬기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 말들이다.

3. 이래서 정답 남한에서는 ③의 예처럼 한자어의 받침 ‘ㅁ, ㅇ’ 뒤의 ‘ㄹ’을 [ㄴ] 소리로 발음하는데, 이를 자음 동화 중 ‘ㄹ의 비음화’라고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모든 모음 앞의 ‘ㄹ’을 한자음 본래 소리로 발음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머릿니’로 표기한다.
- ② ‘나룻배’로 표기한다.
- ④ ‘양심’이라 쓰고, [양심]이라 발음한다.
- ⑤ ‘되었다’ 또는 ‘됐다’로 표기한다.

4. 이래서 정답 ‘동무’, ‘선동’은 이념이나 정치 제도의

차이에 의해 서로 뜻이 다르게 쓰이는 단어이다.

5. 이래서 정답 남한과 북한의 통일된 언어 규범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를 일방적으로 다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심화·문제

161쪽

1 ⑤ 2 ⑤ 3 ②

1. 이래서 정답 남한의 공용어는 ‘표준어’, 북한의 공용어는 ‘문화어’라고 한다.

2. 이래서 정답 남한의 표기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는데,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보기>에서 ‘등교길(북)–등곳길(남)’, ‘내가(북)–넋가(남)’, ‘나무가지(북)–나뭇가지(남)’를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북한도 된소리 발음이 있으나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 ② 북한은 의존 명사를 붙여 쓴다. ‘아는것이 힘이 다.’가 그 예이다.
- ③ 북한은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경향이 있다.
- ④ 북한과 남한이 외래어 표기가 다른 것으로는 ‘백신(남)–왁쎌(북)’ 등이 있다.

3. 이래서 정답 ‘래일’과 ‘료리’를 통해 남한에서는 인정되는 두음 법칙이 북한에서는 인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념보고대회소식’과 ‘칼장단소리’를 통해 북한보다 남한이 띄어쓰기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시험 대비 문제 ·

1. 언어의 본질

165~167쪽

- 01 ④ 02 ② 03 ① 04 ⑤ 05 ③ 06 언어의 사회성
07 ④ 08 ③ 09 ④ 10 ⑤ 11 ④ 12 ②
13 ① 14 ③ 15 언어의 창조성 16 ④

01. 이래서 정답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소멸하며 소리와 의미가 변하기도 하는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02. 이래서 정답 닭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도 나라마다 소리가 같지 않다는 점에서 언어의 자의성에 해당한다.

03. 이래서 정답 소리와 뜻이 필연적이지 않은 언어의 자의성 때문에 우리말에는 여러 의미를 지닌 대상을 같은 소리로 나타내는 동음이의어가 존재한다.

04. 이래서 정답 언어의 자의성은 언어의 내용(의미)과 형식(말소리)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05. 이래서 정답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는 것은 언어가 절대적이지 않고 자의적으로 성립되는 언어의 자의성 때문이다.

06. 이래서 정답 ‘민호’가 사과를 가리키며 사회적으로 약속(언어의 사회성)된 단어인 ‘사과’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나’라고 불러서 ‘나래’가 당황해 하고 있다.

07. 이래서 정답 특정한 의미를 특정한 말소리로 나타내자고 약속한 후에는 개인이 그 약속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언어의 사회성) ‘선풍기’는 ‘선풍기’라고 말해야 한다.

08. 이래서 정답 남자가 사회적으로 약속된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부르면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09. 이래서 정답 남자는 자기 스스로 사물의 이름을 바꾸어 불렀고 그 결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웃을 수 밖에 없었다.

10. 이래서 정답 남자는 언어의 사회성을 부정해 자기 마음대로 사물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돼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11. 이래서 정답 옛날에는 [꽃]으로 소리 내던 것을 현재에 와서는 [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꽃’(과거) - ‘꽃’(현재)은 언어의 소리(형태)가 변한 예에 해당한다.

12. 이래서 정답 <보기>의 ‘어린’은 옛날에 ‘어리석은’으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어린’으로 의미가 이동된 예이다. ‘어엿븐’은 옛날에 ‘가엷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예쁜’으로 의미가 이동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④ 언어의 의미 축소, ③, ⑤ 언어의 의미 확대에 대한 예이다.

13. 이래서 정답 ‘가을’은 예전에는 [ᄒᆞᆫ술]로 말하다가 현재는 [가을]로 말하는 것으로, 언어의 소리가 변화된 예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단어가 생겨난 예에 해당한다.

14. 이래서 정답 <보기>는 언어의 소멸에 대한 예이다. 옛날에 쓰였던 ‘뒹’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쓰이지 않고, ‘산’이라는 단어로 쓰인 예이다.

오답 피하기

① 언어의 자의성, ② 동의어(고유어와 한자어), ④ 동

음이의어, ⑤ 고유어와 한자어의 예이다.

15. 이래서 정답 ‘언어의 창조성’이란,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한정된 말소리로 수많은 단어를 만들 수 있으며, 이 단어들의 나열을 통해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16. 이래서 정답 ④에서처럼 제한된 단어로 새로운 말을 무한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언어의 역사성의 예시이다.
- ② 언어의 사회성의 예시이다.
- ③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언어가 있기는 하나, 모든 언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 ⑤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다.

2. 국어의 품사

169~173쪽

01 ⑤	02 ①	03 ⑤	04 ④	05 ⑤	06 ③	07 ④
08 ④	09 ⑤	10 ①	11 ⑤	12 ①	13 ③	14 ②
15 ③	16 ②	17 ③	18 ④	19 ④	20 ④	21 ④
22 ③	23 예시 답 참조	24 ⑤	25 ④	26 ⑤	27 ④	
28 ⑤	29 예시 답 참조	30 예시 답 참조				

01. 이래서 정답 문장 안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말은 수식언이다.

02. 이래서 정답 단어는 형태가 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뉘고, 문장 안에서의 그 단어의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누며, 각 단어들의 개별적인 의미가 아닌 여러 단어들을 묶을 수 있는 공통적인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나눌 수 있다.

03. 이래서 정답 ‘봐라’는 동작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용언이다.

오답 피하기

①은 수식언, ②는 체언, ③은 관계언, ④는 용언이다.

04. 이래서 정답 <보기>의 문장은 관형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 명사: 오늘, 날씨, 친구, 계획/ 조사: 은, 가, 와, 이야(이다)/ 동사: 나가서, 놀/ 형용사: 좋아서, 친한/ 부사: 정말, 함께/ 감탄사: 음

05. 이래서 정답 대명사는 상황에 따라 같은 사람이나 사물, 장소가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06. 이래서 정답 명사는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고,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며, 꾸미는 말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④ 추상적인 단어들도 명사이다.
- ⑤ 같은 종류의 모든 사물에 두루 쓰이는 이름은 보통 명사에 해당한다.

07. 이래서 정답 ‘나, 너희, 저분, 이것, 저것’은 대명사이며, ‘어느’는 관형사, ‘것’은 의존 명사이다.

08. 이래서 정답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첫째’는 수를 나타내는 수사의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④에서는 ‘말이’의 뜻으로 쓰인 명사이다.

09. 이래서 정답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하거나, 명령형 어미 ‘-어라/ -아라’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없다.

10. 이래서 정답 동사는 ‘먹고, 먹으니, 먹어서’처럼 그 형태가 변하여 쓰인다.

오답 피하기

- ② 동사는 부사의 수식만 받을 수 있다.
- ③ 동사는 어미 ‘-는다/ -니다’가 붙을 수 있다.
- ④ 동사는 주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과정도 나타

낸다.

⑤ 문장에서 다른 말과 아무런 관련성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품사는 감탄사이다. 동사는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11. 이래서 정답 ‘등그는’은 현재형 어미 ‘-는’이 붙어 활용한 동사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기본형이 ‘예쁘다’인 형용사이다.
- ② 기본형이 ‘굳다’인 형용사이다.(과정을 나타내는 ‘굳다’는 동사)
- ③ 기본형이 ‘끓다’인 형용사이다.
- ④ 기본형이 ‘어렵다’인 형용사이다.

12. 이래서 정답 ‘심으셨다’의 기본형은 ‘심다’이다. ‘심으시다’는 기본형 ‘심다’에 선어말 어미 ‘-(으)시’가 붙은 형태이고, 밑줄 친 단어인 ‘심으셨다’는 기본형 ‘심다’에 선어말 어미 ‘-(으)시’와 ‘-었-’이 붙어 만들어진 형태이다.

13. 이래서 정답 ‘밝다’는 어미 ‘-는’이 붙는 동사이다.

오답 피하기

- ① ‘행복하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② ‘알맞다’는 어미 ‘-은’이 붙는 형용사이다.
- ④ ‘끓다’는 어미 ‘-는’이 붙는 동사이다.
- ⑤ ‘크다’는 어미 ‘-는’이 붙는 동사이다.

14. 이래서 정답 관형사와 부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은 독립언인 감탄사이다.
- ③ 부사는 동사와 형용사뿐 아니라 다른 부사나 다른 품사, 문장 전체도 꾸밀 수 있다.
- ④ 관형사는 꾸밈을 받는 말의 앞에 올 수 있다.
- ⑤ 부사는 일부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반면, 관형

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15. 이래서 정답 ‘아무’는 체언 ‘옷’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을’은 뒷말인 ‘하늘’을 꾸며 주지만, 조사가 붙을 수 없는 관형사와 달리, 조사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관형사가 아닌 명사이다.
- ② ‘설마’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④ ‘어떠한’은 형용사 ‘어떠하다’의 활용형이다.(이와 비슷한 것으로 ‘어떤’은 관형사이다.)
- ⑤ ‘이른’은 형용사 ‘이르다’의 활용형이다.

16. 이래서 정답 ‘이, 두, 다섯’은 모두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로, 명사 ‘기차, 사람, 명’을 꾸미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은 수사, ③은 부사, ④는 형용사, ⑤는 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17. 이래서 정답 부사 ‘매우’는 ‘없다’가 아닌 바로 뒤에 나온 형용사 ‘바쁘다’를 수식하고 있다.

18. 이래서 정답 ①, ②, ③, ⑤는 관형사로 ‘음식’을 꾸미나, ④는 부사로 서술어 ‘먹었다’를 꾸민다.

19. 이래서 정답 ㉠ ‘그’는 관형사로 체언 ‘그림’을 꾸며 주며 조사가 붙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② ㉠은 관형사로 체언 ‘그림’을, ㉡은 부사로 용언 ‘든다’를 꾸민다.
- ③ ㉠과 ㉡은 관형사, 부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⑤ ㉡은 부사로 용언을 꾸미며 비교적 위치가 자유롭다. 반드시 체언 앞에 와야 하는 것은 ㉠이다.

20. 이래서 정답 관형사 ‘다른’, ‘그’, ‘갖은’과 부사 ‘모두’로 총 4개의 수식언이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관형사 ‘그’, ‘한’, 부사 ‘항상’으로 총 3개의 수식언이 있다.
- ② 관형사 ‘외판’과 부사 ‘홀로’로 총 2개의 수식언이 있다.
- ③ 부사 ‘많이’와 관형사 ‘온’으로 총 2개의 수식언이 있다.
- ⑤ 관형사 ‘두’로 한 개의 수식언이 있다.

21. 이래서 정답 조사는 문장에서 단어들 간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오답 피하기

- ① 조사는 주로 체언에 결합된다.
- ② 조사는 독립성이 없어서 홀로 쓰이지 못한다.
- ③ 조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지만,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는 다른 조사들과 달리 문장 안에서 활용을 한다.
- ⑤ 격 조사가 아닌 보조사는 앞말에 특정한 뜻을 더해 보다 정밀한 표현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22. 이래서 정답 ‘도’는 문장 속에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갖게 하는 격 조사가 아닌 특정한 뜻을 더해 보다 정밀한 표현을 하게 만드는 보조사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의’는 관형격 조사, ② ‘을’은 목적격 조사, ④ ‘가’는 주격 조사, ⑤ ‘에’는 부사격 조사이다.

23. 예시 답 ㉠ ‘밖에’는 하나의 조사이고, ㉡ ‘밖에’는 명사에 조사가 붙은 것이다.

이래서 정답 ㉠의 ‘밖에’는 ‘자기’라는 체언(대명사) 뒤에 붙어서 쓰인 조사이고, ㉡의 ‘밖에’는 ‘밖(명사)’과 ‘에(조사)’가 붙어 있는 말이다.

24. 이래서 정답 감탄사는 삭제해도 문장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네’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② ‘여보세요’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이런’, ‘아’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감탄사는 문장 안에서 다른 말과 아무런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인다.

25. 이래서 정답 ‘청춘’과 같이 화제를 제시할 때 쓰이는 말은 감탄사와 같은 위치에 쓰이지만 감탄사가 아니다. ‘청춘’은 명사로,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26. 이래서 정답 ‘아무리’는 ‘바쁘더라도’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맞는’은 동사 ‘맞다’에 어미 ‘-는’이 붙은 형태이다.
- ② ‘바쁜’은 형용사 ‘바쁘다’에 어미 ‘-ㄴ’이 붙은 형태이다.
- ③ ‘크나큰’은 형용사 ‘크나크다’에 어미 ‘-ㄴ’이 붙은 형태이다.
- ④ ‘첫째’는 뒤에 오는 ‘시간’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27. 이래서 정답 <보기>의 ‘저’는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으로, 체언 ‘친구’를 꾸며 주고 있다. ④의 ‘새’는 ‘편지’를 꾸며 주므로 같은 기능을 한다.

오답 피하기

- ①은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②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 ③은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 ⑤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인다.

28. 이래서 정답 ‘나’는 대명사, ‘는’, ‘으로’는 조사, ‘새’는 관형사, ‘옷’은 명사, ‘갈아입다’는 동사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그’는 관형사, ‘사람’, ‘키’는 명사, ‘은’, ‘가’는 조사, ‘작다’는 형용사이다.

- ② ‘와’는 감탄사, ‘정말’은 부사, ‘예쁜’은 형용사, ‘꽃’은 명사, ‘이다’는 조사이다.
- ③ ‘우리’는 대명사, ‘는’은 조사, ‘열심히’는 부사, ‘뛰어가다’는 동사이다.
- ④ ‘그녀’는 대명사, ‘는’, ‘이’는 조사, ‘눈’은 명사, ‘참’은 부사, ‘아름답다’는 형용사이다.

29. 예시 답 잘못된 표현은 ㉠의 ‘건강해라’로 이를 ‘건강하게 지내라.’로 고쳐야 한다. ‘건강하다’는 형용사이므로 명령형 어미 ‘-아라/ -어라’와 함께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30. 예시 답 ㉠은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수사이고, ㉡은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므로 관형사이다. / 수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나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은 수사이고, ㉡은 관형사이다.

3. 어휘 체계와 양상

175~177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② 05 ⑤ 06 ④ 07 ③
08 ② 09 ④ 10 ② 11 ② 12 ② 13 (1) 세대에
따른 차이, (2) ‘생선’을 ‘생일 선물’ 14 ② 15 ② 16 ①
17 ② 18 ① 19 꽃

01. 이래서 정답 한자어가 고유어에 비해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02. 이래서 정답 ‘판단’은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림.’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03. 이래서 정답 ‘은하수’는 한자어이다. 은하수를 뜻하는 고유어 ‘미리내’가 한자어나 외래어에 밀려 사라진 단어이다.

오답 피하기

① ‘피’는 ‘산’, ② ‘즈믄’은 ‘천’, ③ ‘가람’은 ‘강’, ④ ‘미르’는 ‘용’을 뜻하는 고유어로 한자어에 밀려 사라졌다.

04. 이래서 정답 ‘배추’는 한자어에서 비롯된 단어로 거의 고유어처럼 사용되는 귀화어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③, ④, ⑤는 모두 고유어이다.

05. 이래서 정답 우리나라에서 원래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을 고유어라고 한다.

06. 이래서 정답 ‘열다’라는 고유어에 여러 개의 한자어가 대응되고 있다. 즉 <보기>는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가 세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여러 가지 한자어가 대응될 수 있으므로 고유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지님을 나타낸다.

오답 피하기

①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지니는 것은 고유어이다.

② 고유어는 한자어에 비해 기본 어휘가 많은 편이지만 <보기>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보기>로 보아 국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⑤ 고유어에는 모양이나 소리 등을 실감 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 <보기>는 이와 관련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

07. 이래서 정답 외래어는 우리에게 없던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외국에서 들여온 말이기 때문에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꾸어 쓰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한자어와 외래어 중에는 오래 전부터 쓰여 지금은 고유어로 인식되는 단어들이다.

② 한자어와 외래어는 우리의 언어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고유어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것이다.

④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단어 중에서 우리말에 포함되어서 널리 쓰인다.

⑤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가 이전보다 활발해져 외래어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

08. 이래서 정답 외래어는 우리말의 일부로 인정받아 국어사전에 등재되었지만, 외국어는 다른 나라의 말로(타국어와 같은 말) 국어사전에 오르지 않는다.

09. 이래서 정답 ‘빵, 버스, 메주, 햄버거’는 외래어이다. 이렇게 새로운 사물을 표현하는 외래어는 우리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없으나 외국어인 ‘와이프’는 우리말인 ‘아내’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10. 이래서 정답 ‘하늬바람’, ‘하늘’, ‘아버지’는 순우리말인 고유어이고, ‘교사(敎師)’는 한자어, ‘텔레비전’, ‘라디오’는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의 일부로 쓰이는 외래어이다.

11. 이래서 정답 지역마다 다르게 형성된 각 지방의 말인 지역 방언은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더라도 각각 다른 말소리로 표현될 수 있다.

12. 이래서 정답 지역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역 방언이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적 조건에 따라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사회 방언 중 전문어는 외국의 학문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④, ⑤ 사회 방언은 세대나 직업, 성별 등 사회적 요건에 따라 쓰이는 말로, 언론 용어인 ‘특종, 취재원, 데스크’ 등이 그 예이다.

13. 이래서 정답 할아버지는 손녀와 세대에 따른 차이로 인해 손녀가 말한 ‘생일 선물’의 줄임말인 ‘생선’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생선’을 ‘생일 선물’로 바꾸어 말하면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가 원활해질 수 있다.

14. 이래서 정답 전문어는 전문적 지식 없이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과 소통하기에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④, ⑤ 전문어는 어떤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쓰여 특정 분야에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며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다.

③ 다의성이란 한 단어가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성질을 말하는데 전문어는 의미가 정밀하고 자세해서 다의성이 적은 편이다.

15. 이래서 정답 은어는 지역 사회의 유대가 아니라 집단의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한다.

오답 피하기

① ‘심메마니’는 산삼을 캐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은어이고, ‘올림대’는 심마니들의 은어로, ‘순가락’을 이르는 말이다. ‘내피’는 심마니들의 은어로, 이 년생 산삼을 이르는 말이다.

③ 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소속감과 동질감을 지닐 수 있으나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소외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④, ⑤ 은어는 특정 집단 사람들이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집단만의 정서나 지켜야 할 금기 사항이 담겨 있다.

16. 이래서 정답 ‘작다’는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라는 뜻이고, ‘적다’는 ‘수효나 분량,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뜻이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따라서 ‘적다’는 ‘작다’의 유의어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② ‘깨끗하다’에는 ‘빛깔 따위가 흐리지 않고 맑다.’는 뜻이 있으므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언제나’에는 ‘모든 시간 범위에 걸쳐서, 또는 때에 따라 달라짐이 없이 항상’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부유하다’에는 ‘재물이 넉넉하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흥미’에는 ‘흥을 느끼는 재미’라는 뜻이 있으므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7. 이래서 정답 <보기>의 ‘가서’는 ‘전기 따위가 꺼지거나 통하지 않아서’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유의어는 ‘꺼지다’, 반의어는 ‘켜지다’가 적절하다.

18. 이래서 정답 ②~⑤의 단어의 쌍은 서로 반의어이다. ‘사람’은 ‘어른’의 반의어가 아니라 어른의 의미 요소 중 하나이다.

19. 이래서 정답 ‘장미, 국화, 개나리, 진달래’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의 단어는 ‘꽃’이다.

4. 올바른 발음과 표기

179~181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③	05 ①	06 ⑤	07 ⑤
08 ④	09 ⑤	10 ④	11 ④	12 ①	13 ⑤	14 ④
15 ④	16 ④	17 ②	18 ⑤			

01. 이래서 정답 ‘ㅈ’와 ‘ㄷ’는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변하는 이중 모음이다.

오답 피하기

③ ‘ㄷ’는 ‘스, 츠’와 연결되면 [저, 처]로 발음된다. ‘ㄴ’는 단어의 처음절 이외의 ‘의’는 [의/이]로, 조사 ‘의’는 [의/에]로 발음할 수 있다.

02. 이래서 정답 ‘저, 켜, 처’ 등은 [저, 켜, 처]로만 발음된다.

오답 피하기

- ①, ⑤ ‘의’는 처음절이 아닌 경우 [의/이]로 발음할 수 있다.
 ③ 조사 ‘의’는 [에/의]로 발음할 수 있다.
 ④ ‘예, 례’ 이외의 ‘예’는 [예]로도 발음할 수 있다.

03. 이래서 정답 ‘의’는 처음절에서는 [의]로만 발음되고 처음절이 아닌 경우 [의/이]로 발음할 수 있고, 조사 ‘의’는 [의/에]로 발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

의’는 [의의/의이]로 발음할 수 있다.

04. 이래서 정답 ‘계’는 [계/게]의 두 발음이 허용된다.

오답 피하기

① ‘예의’는 [예의/예이]로, ②, ④의 ‘예, 례’는 [예, 례]로만, ⑤의 ‘계’는 [계]로만 발음된다.

05. 이래서 정답 ‘뵤-’은 자음 앞에서 [뵤]으로 발음해야 하므로, ‘뵤다’는 [뵤따]로 발음된다.

오답 피하기

② 읽고[일꼬], ③ 여덟[여덜], ④ 흙을[흙글], ⑤ 읊다[읍따]로 발음된다.

06. 이래서 정답 흘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되면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고, 겹받침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 따라서 ‘웃은’은 [오슨]으로, ‘쫓다’는 [쫓따]로 발음된다.

07. 이래서 정답 ‘읽지’는 겹받침 ‘ㄷ’이 자음 앞에서 [ㄷ]으로 소리 나므로, [익찌]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④ 겹받침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이어지면 받침의 자음이 뒤 모음으로 이어져서 발음이 된다.
 ② 겹받침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ㄷ]으로 발음한다.
 ③ 동사 ‘뵤다’의 어간 ‘뵤-’은 자음 앞에서 항상 [뵤-]으로 발음한다.

08. 이래서 정답 흘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되면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밭을’은 [바틀]로 발음된다. 겹받침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이어지면 받침의 자음이 뒤 모음으로 이어져서 발음이 되므로 ‘넋이’는 [넉시 → 넉씨], ‘살을’은 [살믈]로 발음되고, 형용사 ‘넉적하다’의 경우 [넉찌카다]로 발음된다.

오답 피하기

㉠ ‘있에’는 [이페]로, ㉡ ‘빛이’는 [비치]로 발음해야 한다.

09. 이래서 정답 ‘꽃 위에’의 ‘꽃 위’는 ‘ㄷ’ 받침을 대 표음인 ‘ㄷ’으로 바꾸어 [꼬뒤에]로 발음한다.

오답 피하기

형식 형태소인 조사와 결합한 것이므로 ①은 [소 틀], ②는 [우스믈], ③은 [논바테서], ④는 [참수체]로 발음된다.

10. 이래서 정답 ‘뚫어’는 [뚜러]로, ‘닭 앞에’는 [다가 페]로 발음해야 한다.

11. 이래서 정답 ‘표’음은 [피으블]로 발음된다.

오답 피하기

①은 [키으기], ②는 [치으시], ③은 [디그스로], ⑤는 [티으슨]으로 발음된다.

12. 이래서 정답 ‘갈께’는 ‘갈게’로 표기해야 한다. 어미 ‘-(으)ㄴ게’는 [- (으)ㄴ게]로 발음되지만 표기는 항상 ‘-(으)ㄴ게’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13. 이래서 정답 ㉠ ‘맛있다’는 [마뎡따, 마신타]로, ㉡ ‘밝게’는 [발게]로, ㉢ ‘웁고’는 [읍꼬]로 발음된다.

오답 피하기

㉠ ‘차레’는 [차레]로, ㉡ ‘썩인다’는 [씨긴다]로, ㉢ ‘동넵에’는 [동녀케]로 발음된다.

14. 이래서 정답 ‘부치다’는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 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로 보내는 것’이므로 ㉠에, ‘붙이다’는 ‘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에 들어가야 한다. ㉢에는 ‘비뚤 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를 뜻하는 ‘반 듯이’가 들어가야 한다. ㉣에는 ‘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을 뜻하는 ‘지그시’가 들어가야 한다.

15. 이래서 정답 ‘-데’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 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므로 ‘좋데.’라는 표기는 적절하 다.

오답 피하기

① ‘-든지’는 선택과 관련되므로 과거의 사실과 관 련시키는 ‘-던지’를 사용해 ‘피곤하던지’로 표기해야 한다.

② ‘-로써’는 ‘재료, 수단, 방법’을 의미하므로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자격을 가진 입장’을 의미하는 ‘- 로서’를 사용해 ‘학생으로서’로 표기해야 한다.

③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맞혔다’로 표기해야 한다.

⑤ ‘돼’는 ‘되-’에 ‘-어’를 붙여 줄인 말로, ‘되’를 사 용해 ‘되라고’로 표기해야 한다.

16. 이래서 정답 ‘걸잡다’는 ‘쓰러지는 것을 거두어 붙 잡다.’란 뜻을 나타내며, ‘걸잡다’는 ‘걸가량하여 먼 저 어렵치다.’란 뜻을 나타내므로 ④의 문장에서는 ‘걸잡다’로 표기한 것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다리다’는 ‘다리미로 문지름.’을 뜻하므로 ‘끓여서 진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달이다’로 표기해야 한다.

② ‘어찌 된 일, 의외의 뜻’을 나타내는 ‘웬일로’로 표 기해야 한다.

③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 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라는 의미이 므로 ‘조리는’으로 표기해야 한다.

⑤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 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늘이다’로 표기해야 한다.

17. 이래서 정답 ‘이따가’는 [이따가]로, ‘있다가’는 [일따가]로 발음된다.

18. 이래서 정답 ‘육계장’의 올바른 표기는 ‘육개장’이 다.

오답 피하기

- ①, ④ ‘찌게’와 ‘육계장’, ‘양념 개장’은 ‘ㄱ’과 ‘ㄷ’의 발음을 혼동하여 표기를 잘못된 예이다.
- ② ‘떡볶이’의 경우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으로, 알맞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떡볶이’로 표기해야 한다.
- ③ ‘줄임’은 ‘조림’과 그 발음이 같아 잘못 표기한 것으로, ‘갈치 조림’으로 표기해야 한다.

5. 담화와 맥락

183~185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② 05 ⑤ 06 예시 답 참조
07 ③ 08 ④ 09 ④ 10 ① 11 ② 12 ④ 13 ②

01. 이래서 정답 담화는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담화의 구성 요소는 화자, 청자, 발화 내용, 맥락이다.

02. 이래서 정답 동호는 엄마가 자신의 행동을 나무라는 의미로 나이를 묻는다고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말을 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다.

03. 이래서 정답 <보기>는 상대방에게 요청이나 부탁을 하는 기능인 발화의 간접적인 표현이다.

04. 이래서 정답 여학생의 말은 문장 유형과 발화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문장의 유형은 정보를 전달하는 평서문이지만 발화 의도는 남학생이 자기와 함께 내리기를 원하고 있다.

05. 이래서 정답 단어도 일정한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잘하다’는 어떤 일을 뛰어나게 했다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잘하지 못한 것을 비꼬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06. 예시 답 ㉠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이고, ㉡은 단순한 인사를 하기 위한 의도이다.

07. 이래서 정답 (나)의 상황은 단순히 날씨가 좋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던 친구에게 날씨가 좋으니 함께 놀자는 요청이나 제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가)는 현재 날씨의 상태를 질문하고, (나)는 나가자는 요청, (다)는 인사(친교)의 목적이 있으므로 모두 화자의 의도가 다르다.
- ④ (다)에서 시간적, 공간적 상황은 각각 아침, 약속터이다.
- ⑤ (다)에서 행인 1은 행인 2에게 인사말을 건네려는 의도이다. 따라서 행인 2는 행인 1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08. 이래서 정답 엄마는 시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험 전날에도 공부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는 딸을 꾸중하는 상황인데, 딸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엄마에게 사과하고 있다.

09. 이래서 정답 (라)에서 아빠는 아들에게 일어나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들은 아빠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10. 이래서 정답 ㉠은 대화 상황으로 보아 학교에 안가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빨리 서두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은 엄마가 방을 어질러 놓은 이유를 묻은 것에 대한 대답이다.
- ③ ㉡은 아들에게 발표를 잘하라는 것을 간접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 ④ ‘오늘은’이라는 말로 볼 때, 방 청소를 하지 않는 일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1. 이래서 정답 서로 다른 지역 방언의 사용자들은 서로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12. 이래서 정답 민호는 할머니가 축구에 대한 배경 지식(축구의 규칙)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할머니의 나이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대화 주제가 ‘축구’이므로, 나이가 많더라도 축구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었다면 의사소통하는 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13. 이래서 정답 주인의 발화는 음식을 푸짐하게 차렸으니 마음 놓고 음식을 먹으라는 의미이다. 이는 자신이 한 일을 낮추는 겸손의 의미도 담고 있다. 한국의 언어 관습은 일반적으로 자신에 관련된 것을 더 낮추어서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6. 우리의 문자, 한글							187~188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①	05 ③	06 ①	07 ①	
08 ⑤	09 ②	10 ②	11 ④	12 예시 답 참조			

01. 이래서 정답 우리말은 있었으나 글자가 없어, 중국의 글자인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리거나 우리말 순서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였다.

02. 이래서 정답 언문일치란, 말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이 일치한다는 뜻으로 한글의 특성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④, ⑤ 한자의 특성이다.
 ③ 표음 문자인 한글은 표의 문자인 한자에 비해 글자 수가 훨씬 적다.

03. 이래서 정답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름을 인식하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에서는 자주 정신이 드러난다.

04. 이래서 정답 ‘ㅁ’은 입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이다.

오답 피하기

②, ④, ⑤는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기본자에 획을 더해 소리의 세기를 표시한 가획자이다. ③ ‘ㅇ’은 목구멍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이다.

05. 이래서 정답 <보기>의 글자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인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든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가획은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② 병서는 가로로 나란히 쓴 글자이다.
 ④ 연서는 세로로 나란히 쓴 글자이다.
 ⑤ 합성은 기본 글자들을 다시 합하여 다른 글자를 만든 것을 말한다.

06. 이래서 정답 ㉠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드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기본자이다.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ㅇ’은 이의 모양을 각각 본떠 만들었다.

07. 이래서 정답 ㉡의 ‘ㅋ, ㆁ, ㅌ, ㅍ, ㅊ’은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이다.

08. 이래서 정답 이체자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와 같은 원리)에 의해 만든 것이 아니라 소리의 세기와 상관없이 모양을 다르게 해서 만든 글자이다.

09. 이래서 정답 <보기>는 초출자이다. 초출자는 기본자 ‘ㄱ, ㆁ, ㅌ’에 합성의 원리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10. 이래서 정답 한글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어 민주적이다.

11. 이래서 정답 <보기>는 중국어를 컴퓨터에 입력할 때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기>의 상황과 달리 한글은 자판을 누름과 동시에 글자가 바로 입력되어 입력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지닌다.

12. 예시 답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글자로 표기되도록 체계적으로 조직된 문자이기 때문에 배우기 쉽다.

7. 음운 체계

190~192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② 05 ① 06 ③ 07 ④
08 ① 09 ③ 10 ③ 11 ③ 12 ④ 13 ③ 14 ⑤
15 ① 16 ② 17 ⑤ 18 ⑤

01. 이래서 정답 가수의 노랫소리도 말을 박자와 리듬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므로 말소리가 된다.

02. 이래서 정답 ‘외’는 단모음 ‘ㅝ’ 하나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답 피하기

②의 ‘집안’은 ‘ㅈ, ㅊ, ㅌ, ㄷ, ㄴ’의 5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03. 이래서 정답 ‘달’, ‘딸’, ‘탈’은 ‘ㄷ’, ‘ㅌ’, ‘ㅌ’에서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데, 이로 보아 ‘ㄷ’, ‘ㅌ’, ‘ㅌ’은 서로 다른 음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4. 이래서 정답 ‘성대가 좁아져서 울림이 커지는 소리’는 울림소리로, 발음할 때 성대의 울림 여부에 따라 나눈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은 목청소리, ③은 입술소리, ④는 잇몸소리, ⑤는 섹입천장소리로,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나눈 것이다.

05. 이래서 정답 ‘ㄷ’과 ‘ㄴ’은 ‘잇몸소리’이고 소리를 만들어 내는 위치는 같다.

오답 피하기

② ‘ㄷ’과 ‘ㅌ’은 소리 나는 위치가 같고, 소리를 만드는 방법은 파열음과 마찰음으로 다르다.

③ ‘ㄴ, ㄹ, ㅁ, ㅇ’을 제외한 모든 자음은 안울림소리이다.

④ ‘ㅈ, ㅉ’은 소리 나는 위치와 방법 모두 같다.

⑤ 공기가 코로 흘러나가면서 나는 소리는 비음이며, 비음은 ‘ㄴ, ㅁ, ㅇ’만 해당한다.

06. 이래서 정답 목 부분에 힘을 주면서 공기를 가장 많이 내뿜는 소리로, 크고 거친 느낌을 주는 소리는 거센소리이다. ‘철썩철썩’의 ‘ㅈ’과 ‘ㅉ’은 거센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은 된소리, ②, ④는 예사소리, ⑤는 울림소리를 초성으로 한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07. 이래서 정답 발음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기의 흐름에 장애를 받느냐에 따라 <보기>에 제시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눌 수 있다.

08. 이래서 정답 ‘아직’의 ‘아’는 모음으로(‘ㅇ’은 소릿값이 없는 자음임.), ‘아직’은 비음(ㄴ, ㅁ, ㅇ)이나 유음(ㄹ)이 들어가지 않은 단어이다.

09. 이래서 정답 (나)의 위치는 ‘잇몸’이고 잇몸소리는 ‘ㄷ, ㅌ, ㅌ, ㅌ, ㅌ, ㄴ, ㄹ’이다. (가)는 입술소리로 ‘ㅁ, ㅂ, ㅃ, ㅍ’이, (다)는 여린입천장소리로 ‘ㄱ, ㅋ, ㆁ’이 소리 난다. ‘ㅎ’은 목청소리이다.

10. 이래서 정답 ‘ㅂ, ㄷ, ㄱ’은 막힌 발음 기관이 갑자기 열리면서 공기가 터져 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파열음이다. 파열음은 ‘ㅂ, ㅃ, ㅍ, ㄷ, ㅌ, ㅌ, ㄱ, ㅋ, ㆁ’이고, 마찰음은 ‘ㅅ, ㅆ, ㅎ’, 파찰음은 ‘ㅈ, ㅉ, ㅊ’이다. 비음은 ‘ㄴ, ㅁ, ㅇ’이고, 유음은 ‘ㄹ’이다.

11. 이래서 정답 ‘ㄱ’과 ‘ㄴ’은 혀의 높이와 최고점의 위치는 비슷하지만, 입술을 평평하게 하느냐(ㄱ), 둥글게 하느냐(ㄴ)의 차이가 있다.

12. 이래서 정답 단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지 않으나 이중 모음은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달라진다. 이중 모음은 ‘ㅏ’이다. 나머지는 단모음이다.

13. 이래서 정답 소리를 낼 때 입술이 둥그랗게 모아지지 않는 모음은 평순 모음이고, 혀의 위치가 낮은 모음은 저모음이다. 이에 해당하는 모음은 ‘ㅏ’이다.

14. 이래서 정답 ‘ㅐ’는 ‘ㅔ’와 혀의 최고점의 위치는 같고(전설 모음), 높낮이가 다르다. ‘ㅐ’는 혀가 더 아래로 내려간다(저모음).

오답 피하기

① ‘ㅐ’는 ‘ㅔ’보다 혀가 낮은 위치에 있다. ② ‘ㅐ’를 발음할 때는 입을 ‘ㅔ’보다 더 크게 벌린다. ③ ‘ㅔ’와 ‘ㅐ’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같다. ④ ‘ㅐ’와 ‘ㅔ’는 발음할 때 입술이 평평하게 퍼진다.

15. 이래서 정답 양 입술을 모아서 소리를 내고 코로 공기를 통과시키는 자음은 ‘ㅁ’이고, 혀가 높은 위치에 있고 혀의 최고점이 앞으로 가면서 입술이 평평하게 퍼지는 모음은 ‘ㅣ’이다. 따라서 <보기>의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키면 ‘ㅁㅣ’이다.

16. 이래서 정답 하나의 음절에는 반드시 모음이(하나) 포함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모음만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다.
③ ‘우아’는 2개의 음절로 이루어졌다.
④ ‘이’와 ‘오’는 모두 하나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⑤ ‘왜’는 하나의 모음이고 모음 하나로 음절을 이룬 것이다.

17. 이래서 정답 국어에서는 하나의 음절에 자음 두 개가 이어질 수는 없다. 즉 ‘흙’은 ‘자음+모음+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다. ‘흙’은 하나의 음절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흑]으로 발음되고, ‘이’와 같은 조사

가 이어져서(흙+이) 두 음절이 되면 ‘ㄹ’에서 ‘ㄱ’은 다음 음절인 ‘이’로 넘어가서 [흙기]로 발음된다(‘ㄱ’은 두 번째 음절에서 발음되는 음운이 됨.).

18. 이래서 정답 ㉠의 단어들은 짧은 발음이고, ㉡의 단어들은 긴 발음이다. 소리의 길이로 단어가 구별되며, 따라서 ‘소리의 길이’는 국어의 음운이 된다.

8. 문장의 짜임과 표현

194~197쪽

01 ②	02 ④	03 예시 답 참조	04 ①	05 ①	06 ③
07 ③	08 ①	09 예시 답 참조	10 예시 답 참조	11 ③	
12 ①	13 ①	14 예시 답 참조	15 ④	16 ⑤	17 ③
18 ④	19 예시 답 참조	20 ①	21 ③		

01. 이래서 정답 ‘나 휴대 전화’는 주어와 서술어가 분명하지 않으며,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어미와 문장 부호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문장으로 보기 어렵다.

02. 이래서 정답 <보기>의 절인 ‘빨간’은 ‘단풍이 빨갳다.’라는 문장에서 주어 ‘단풍이’가 생략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보기>는 ‘(단풍이) 빨간’의 1개의 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보기>는 ‘가을 산이’, ‘빨간 단풍으로’, ‘온통 물들었다.’의 3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다.
③ <보기>는 ‘가을/산이/빨간/단풍으로/온통/물들었다.’의 6개의 어절로 구성되어 있다.
⑤ ‘산이’, ‘물들었다.’ 등 조사와 어미가 결합해 한 어절을 이루고 있다.

03. 예시 답 주어 ‘나는’과 서술어 ‘배운다.’가 한 번씩만 나타나기 때문에 홑문장이다.

04. 이래서 정답 ①은 주어(그는)와 서술어(과묵하다)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고, 나머지는 모두 겹문장이다.

오답 피하기

- ② ‘봄이 간다.’+‘여름이 온다.’
- ③ ‘우리 학교는 넓다.’+‘운동장이 넓다.’
- ④ ‘가는 말이 곱다.’+‘오는 말이 곱다.’
- ⑤ ‘사람들이 알았다.’+‘지호가 잘못을 저질렀다.’

05. 이래서 정답 ㉠은 겹문장으로 여러 내용을 복잡하게 전달하여 정확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이처럼 여러 개의 문장이 한 문장 안에 쓰이는 경우 말이나 글이 복잡해져서 정확한 의미의 전달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06. 이래서 정답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 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종속적 연결 어미가 붙은 문장이 뒤 문장에 종속되어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앞, 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07. 이래서 정답 ‘-고’라는 어미가 사용되어 ‘나는 밥을 먹었다.’와 ‘나는 손을 씻었다.’라는 문장이 연결되었으며, 시간의 선후라는 의미로 이어진다. 앞 문장이 뒤 문장에 종속되며 문장의 순서가 바뀌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④, ⑤는 앞, 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고’에 의해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08. 이래서 정답 안은문장이나 이어진문장에서 두 문장의 성분이 동일할 때 둘 중 하나의 성분이 생략될 수 있다. ①은 ‘도회는 게임만 했다.’라는 문장 안에 ‘날이 새다.’라는 문장이 부사절로 안긴 것으로 생략된 성분은 없다.

09. 예시 답

(1) 자연스럽게 읽는 이유: 주어진 ‘비’와 서술어인

‘불다’가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

(2) 고쳐 쓴 문장: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우산이 뒤집혔다.

이래서 정답 주어진 문장은 ‘비가 내리다.’와 ‘바람이 불었다.’, ‘우산이 뒤집혔다.’의 홑문장들이 이어진 문장이다. ‘비가 내리다.’와 ‘바람이 불었다.’의 두 문장을 확대하면서 주어진 ‘비’와 서술어인 ‘불었다.’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읽히게 되었으므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우산이 뒤집혔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10. 예시 답 나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래서 정답 명사형 연결 어미 ‘-기’를 사용해 ‘나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의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11. 이래서 정답 ㉠은 조사 ‘에’가 붙어 명사절이 안은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12. 이래서 정답 관형절이 만들어질 때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의 공통 성분은 생략된다. ‘저 건물이 파란색이다.’라는 문장이 관형절이 되면서 뒤 문장과 공통적인 성분인 ‘건물’이 생략된 것으로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13. 이래서 정답 동사에는 어미 ‘-(으)ㄴ’, ‘-던’이 붙으면 과거를 나타내지만 형용사에 어미 ‘-(으)ㄴ’이 붙으면 현재를 나타낸다. ①은 ‘미소가 밝-’에 어미 ‘-(으)ㄴ’이 붙어 관형절이 되어 현재를 나타내고 있다. ②, ③, ④, ⑤는 과거를 나타낸다.

14. 예시 답 (가)는 ‘눈이 부시다.’에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 부사절로 안긴 문장으로 볼 수 있다. (나)는 ‘눈이 부시다.’라는 문장과 ‘하늘이 푸르다.’라는 문장에 종속적 연결 어미 ‘-게’가 붙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이래서 정답 (가)의 ‘눈이 부시게’는 ‘눈이 부시다.’에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서 부사절로 쓰인 것이다. (나)는 ‘눈이 부시다.’라는 문장에 종속적 연결 어미 ‘-게’가 붙어서 ‘하늘이 푸르다.’라는 문장에 종속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이래서 정답 <보기>는 부사형 어미 ‘-게’를 사용해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④는 부사형 어미 ‘-이’를 사용해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오답 피하기

①은 서술절, ②는 명사절, ③은 관형절, ⑤는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다.

16. 이래서 정답 서술절은 안긴문장 안으로 안은문장의 성분이 들어갈 수 있다. 이는 다른 안긴문장과 구분되는 서술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오답 피하기

서술절은 주어가 2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뒤의 주어는 서술절의 주어로 해석하며, 이때 전체 문장은 서술절이 안긴 겹문장이다. 또한 서술절임을 나타내는 특정한 표지는 없다.

17. 이래서 정답 서술절은 서술어 1개에 주어가 2개 이상 있는 문장에 나타나는데, ‘선혁이는 잘생겼다.’는 주어(선혁이는) 한 개와 서술어(잘생겼다.)로 구성된 홑문장이다. 나머지는 모두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다.

18. 이래서 정답 ㉠에서 직접 인용절인 ‘이제 그만하자.’는 청유문이다. 간접 인용절에서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 어미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평서문일 경우 ‘-다고’, 의문문일 경우 ‘-냐고’, 청유문일 경우 ‘-자고’, 명령문일 경우 ‘-라고’로 나타난다. 따라서 ㉠은 간접 인용절로 바뀌면 ‘정욱이가 나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다.’가 된다.

19. 예시 답 선생님께서는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하

다고 말씀하셨다.

이래서 정답 간접 인용은 조사 ‘고’를 붙이므로 ‘선생님께서서는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다.’로 고쳐 쓸 수 있다.

20. 이래서 정답 ‘되다, 아니다’ 앞의 ‘이/가’는 보어로 서술절의 주어와 다르며 이는 홑문장이다.

21. 이래서 정답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두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②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비가 와서 길이 질다.’로 바꾸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된다.
- ④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9. 통일 시대의 국어

199~200쪽

01 ⑤ 02 ② 03 ① 04 ④ 05 ⑤ 06 ③ 07 ⑤
08 ④ 09 ③

01. 이래서 정답 ‘조선말’은 우리말(한국어, 국어)을 북한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이것이 언어 차이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02. 이래서 정답 외래어의 사용은 남한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03. 이래서 정답 모음 글자의 이름은 남북한 모두 모음의 발음이 글자의 이름이다.

오답 피하기

- ② ‘ㄱ’은 남한에서는 [기역], 북한에서는 [기옥]으로 발음한다.
- ③ ‘ㅅ’은 남한에서는 [시옷], 북한에서는 [시읏]으로 발음한다.

④ ‘ㅍ’을 ‘쌍기역’이라고 하는 남한의 이름은 ‘ㅍ’이 나란히 있는 모양에서 나온 것이므로 발음을 알 수는 없다. 북한의 ‘뽕기옥’이라는 이름에서는 글자의 발음을 알 수 있다.

⑤ ‘ㅇ’은 북한에서 경우에 따라 ‘웅’이라고도 한다.

04. 이래서 정답 ④는 북한 사전의 모음에 대한 설명이다. 남한의 사전은 ‘ㅍ’ 다음에 ‘ㅑ’가 온다.

05. 이래서 정답 북한에서는 ‘녀성’, ‘로인’으로 표기하고 [녀성], [로인]으로 발음된다.

오답 피하기

② 북한에서는 외래어의 사용을 피하고 순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누스’와 같이 받아들이기도 한다.

③ <보기>에서 남한에서는 의존 명사를 띄어 썼지만, 북한에서는 붙여서 썼다.

06. 이래서 정답 남한에서는 외래어를 그대로 받아들이 ‘노크’라고 표현한 반면,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사용한다. ‘노크’와 ‘손기척’은 북한의 외래어 사용이 남한보다 덜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에 해당한다.

07. 이래서 정답 (나)의 어휘들은 남한에서도 쓰이지만 그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어휘들이다.

08. 이래서 정답 남한과 북한의 통일된 언어 규범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다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09. 이래서 정답 위의 기사를 볼 때 남한과 북한 사이에 표기법의 차이나 어휘의 차이가 있지만 기사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마라손 → 마라톤/인터넷 → 인터넷

② 되였다. → 되었다.

④ 남한에서는 ‘마라톤’ 애호가들의 ‘참가’ 밑에’ 등으로 띄어 쓴다.

⑤ 일군 → 일꾼